책 돗 햕 정

일본의 영유아 양육비용

최윤경 부연구위원

일본정부의 영유아 자녀양육비 조사는 가구 공통의 비용을 제외하고, 자녀양육에 국한된 10개 중분류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 육아비용의 구조 파악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해 수행되 었다. 그 결과, 영유아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은 영아기의 경우 주로 어린이 「예·적금·보험」과 「식비」, 「생활용품비」에서, 유아기의 경우 특히 「보육비」의 비중이 큰 데에 있었다. 가구소득 수준 별로 살펴본 결과, 중산층 이상의 양육비 지출패턴은 유사한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지출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 저소득 가정이 자녀양육비용에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양육비용 지출 조사를 통해 육아비용 지출 구조를 파악하여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양육지원체계를 수립해 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 조사 배경 및 목적

일본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저출산 주요 원인인 양육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 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의 대표적 육아지원정책인 아동수당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육아, 의료, 보육, 교육 등의 '라이프 사이클' 을 통한 가계부담 경감 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 가정의 육아 비용 구조

파악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크다. 일본 내각부에서 는 연간 소요되는 양육비용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 를 통해 개별 가계에서 육아에 드는 비용이 어떠한 용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쓰이는 지 파악하고. 각 가계유형별 양육비 지출을 집계하여 향후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난 2009년 전국 11.145가구의 연간 육아비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 중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자료 를 선별하여 양육비 지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이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양육비용연구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 2010)'의 내용중 일부를 재구성한것임.

정 책 동 향

가,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인터넷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 형식으로, 육아에 드는 가계지출금액을 1년동안 제시된 10개 항목별로 응답하게 하였다(표 1 참조). 양육비용 산출"은 주・월・연 단위로 회답한 비목별금액을 합신하여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주단위월조사는 총무성 가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가계비지출의 변동이 가장 적고 월평균 가계지출에 가장근접한 11월 한 달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나, 조사 대상 특성

조사대상 응답자는 0~15세 신생아부터 중학생 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의 총 11,145명의 성인이 며, 이 논문은 그 중 만 0~5세 자녀 4,81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취합한 내용이다. 0~15세 전체조사대상 가정의 자녀수는 평균 1.17명이며, 자녀수 2명을 둔 가정은 47%로 약 과반수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부모의 평균 연령은 각

〈표1〉일본 인터넷 육아비용조사 항목

구 분	내 용
의류 · 복식잡화비	의류, 속옷류, 신발, 가방류, 기타 신변품
식비	가정내에서의 식사비, 도시락재료값, 외식비, 군것질, 간식비
생활 용품 비	생활소모품, 문방구, 도화공작용품비, 만화·잡지·서적·그림책 CD·DWD, 비디오, 장난감· 게임류, 휴대전자기기류, 어린이용생활용품·용구, 어린이용 가구·가전, 어린이용침구
의료비	보건·의료기관 창구에서의 지불액,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 조제약국·드럭스토어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류
보육비	보육소·유치원 등의 입원 초기비용, 보육소·유치원 등의 입원 준비비, 보육소·유치원 등의 보육료·수업료·급식비 등, 보육소·유치원 등의 행사·교재비, 일시보육료, 베이비시터 대금 등, 학동보육비
축하행사비	출산축하비, 입원·입학·졸업 축하비, 생일축하, 계절행사비
학교외 교육비	가정내 학습용 도서, 학원비, 통신교육· 교재학습비, 가정교사료, 기타 학교외 학습비
학교외 활동비	원 외 취미교습 수업료, 취미교습의 용구·용품비, 검정비용, 발표회·시합비용, 기타 학교외 활동비, 아동의 단기유학·홈스테이비용
어린이를위한 예·적금·보험	예·적금, 각종 보험
레저·여행비	어린이와의 당일치기 레저비용, 어린이와의 숙박을 수반하는 여행비

주 총 16개 항목중, 학교교육비, 출산관련 비용임신중출산준비비, 출산관련비, 출산관련 정부조성금 수급액) 용돈, 아동휴대전화요금등 6개 항목은 영유이키 양육비용 측정에 활용되지 않거나 그 액수가 미미하여 생략함. 자료: 일본내격부(2010) 인터넷에 의한 육이비용조사 보고서, 6쪽

¹⁾ 미국의 경우, 센서스국에서 실시하는 소비지출조사 (Consument Expenditure Survey:CE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지출을 주거, 식료품, 교통, 의복, 의료, 보육ㆍ교육, 기타 잡비의 대항목으로 구성, 각 항목에 대한 가계지출 총액을 추계한 후 한 자녀양육에 소요하는 비용을 항목별로다변량 추정하여 연간 자녀양육비를 추계함. 호주의 경우, 미국과마찬가지로 가구공통소비지출 자료(Household Expenditure Survey)에 근거하여 자녀양육비를 추계하나 지출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포함 여부)의 구성에 차이가 존재함.

각 38.3세, 36.4세이며, 전체적으로 29세 이하 7.5%, 30대 61.1%, 40대 29.9%, 50세 이상 1.5% 로, 30대 특히 35~39세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608 만3천앤, 연수입 500~600만엔 미만이 18.1% 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부부 소득을 비교한 결 과 모 14만엔, 부 33만엔으로 모의 수입이 부의 4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별 가구소 득 추이를 보면, 첫째 자녀의 연령·학년이 높아 집에 따라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은 조금씩 높아 진 반면 어머니의 경우 0세를 제외하면 자녀의 연령 · 학년에 따른 모 수입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전반적으로 첫 자녀가 영아인 가구보다는 유

아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보다 는 양부모 가구, 외벌이 보다는 맞 벌이의 가구의 소득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맞벌이와 외 벌이 가구의 소득 차이는 별로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 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2.5%, 모 취업률 41.1%, 부 정규 직 비율 86.3%, 그리고 한부모 가 정 비율 3.7%로 표집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 미취학 영유 아 중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 유 치원 이용률은 연령별로 각 4.7% 16.8%. 21.8%을 보였으며, 만3세

이후의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이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해 연령별로 각 46.4%, 90.5%, 97.3%, 95.9%로 나타났다. 취학연령이 가까워질수록 대 부분의 아동들이 유치원 또는 인정어린이원 · 보 육소를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 결과

가, 품목별 양육비용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8만7 천엔(한화 약120만원)으로 영아 월 약 7만엔(한 화 약 97만원), 유아 월 약 10만엔(한화약140만 웬으로 유아기 자녀의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드는

〈표2〉월 양육비용 항목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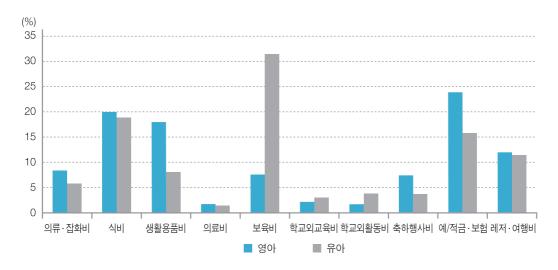
단위: 엔, %(명)

フロ3	영아 (미취운	! 아, 수=2	,231)	유아 (보육소·유치원아, 수=2,583)			
구분》	항목	항목 비용 비율 항목		비용	비율		
합계		70,268	100,0		101,379	100,0	
1위	예·적금·보험	16,617	23,6	보육비	31,618	31.2	
2위	식비	13,866	19.7	식비	18,719	18.5	
3위	생활 용품 비	12,452	17.7	예·적금·보험	15,601	15.4	
4위	레저·여행비	8,094	11.5	레저ㆍ여행비	11,366	11.2	
5위	의류·잡화비	5,730	8.2	생활 용품 비	7,711	7.6	
6위	보육비	5,233	7.4	의류·잡화비竣	5,539	5.5	
7위	축하행사비	4,991	7.1	학교외활동비	3,599	3.5	
8위	학교외교육비	1,303	1.9	축하행사비	3,423	3.4	
9위	의료비	989	1.4	학교외교육비	2,566	2.5	
10위	학교외활동비	955	1.4	의료비	1,122	1.1	

²⁾ 한화로 환산하면 연소득은 약 8천4백만원, 월 소득은 약 700만원임.

³⁾일본보고서에서 0·2세 영이기 아동을 미취원아로 3·6세유이기 아동을 '보육소·유치원이'로 칭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각각 영아, 유이로 표기하였음,

정 책 동 향



[그림 1] 영유아기 품목별 월양육비 비율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자녀의 장래를 위한 어린이용 예·적금·보 험비가 23.6%, 월 평균 1만7천엔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식비와 생활용품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보육비가 월평균 3만2천엔으로 총 양육비의 30%이상을차지하는 가장비중이 큰 품목으로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식비,예·적금·보험비로 나타났다(표2참조). 상대적으로 의료비와 학교외 교육 및 활동 비용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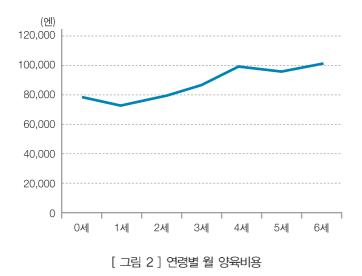
나. 연령별 양육비용

첫 자녀 연령에 따른 월평균 양육 비용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증 가에 따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월 평균 양육비용은 0세 7만8천엔, 1세 7만3천엔, 2 세 7만9천엔 3세 8만6천엔 4세 10만엔 5세 9

〈 표 3 〉 자녀연령별 월 양육비용 및 총양육비대비 비율

단위: 엔, %(명)

						근ㅜ	1. 211, 70(3)
구 분	에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총비용	77,603	73,170	78,559	86,714	99,759	96,626	101,270
항목별 비율							
의류·복식잡화비	9.5	7.9	7.0	6.0	5.6	4.9	5.8
식비	11.9	17.7	20.9	20.4	18.9	19.7	21.1
생활 용품 비	23,9	18.1	13.9	8.6	7.0	6.6	6.5
의료비	1.4	1.6	1.2	1,1	1.1	1.1	1,1
보육비	5.5	12.6	17.2	25.8	30.4	29.4	27.7
학교외교육비	0.9	1.5	1.9	2.2	2.7	3.0	3,3
학교외활동비	0.3	0.7	1.3	2.0	3.4	5.2	5.7
축하행사비	17.1	3.2	3.1	4.1	3.6	3.3	3.0
예·적금·보험	23,8	25.4	20.7	18.1	15.5	14.4	13.3
레저 · 여행비	5.7	11.0	12.8	11.6	11.5	12.3	12.4
계 (수)	100 <u>.</u> 0 (528)	100 <u>.</u> 0 (827)	100 <u>.</u> 0 (782)	100 <u>.</u> 0 (744)	100 <u>.</u> 0 (762)	100,0 (739)	100.0 (433)



만7천엔, 6세 10만엔으로 산출되었다.

각 연령별 주요 지출 품목을 살펴보면 0세에는 생활용품비와 예 · 적금 · 보험비가 가장 많았고. 1세에는 예·적금·보험비, 2세에는 식비와 예· 적금 · 보험비. 3세 이상에서는 보육비가 30% 내 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기 연령에 따른 양육비 지출의 양상이 다른 가운데, 대체로 영아 기에는 예·적금·보험비가, 취학전 유아기에는 보육비의 부담이 컸다. 만1세 이후 부터 보육 비용 증가세를 보이다가 3세 월 23만엔 이상. 4~6세는 월 34만엔 이상으로 '보육비' 부담의 증가가 양육비용 총액의 증가로 이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기 자 녀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 를 위한 예·적금·보험비는 연령 증가에 따른 양육비의 증가로 총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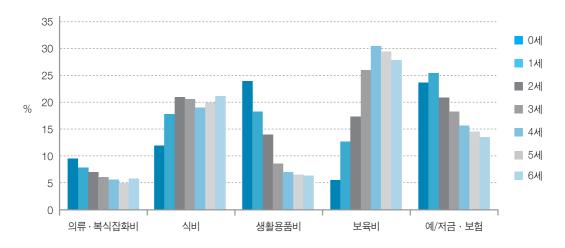
연령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부담률을 조사 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 비용의 지출이 늘어나고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 또한 완 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시기별로 영아기 양육비 부담률이 가구소득 대비 15.7%인 데 반해 유아기는 20.5%로 증기하였다. 전체 아 동기(0~18세)로 보아도 미취원 영아기 자녀의 양 육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연령별 양육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부담률

단위: 엔, %, 명

구분	월평균 육아비용(A)	월평균 가구소득(B)	양육비부담률 (A/B)	구분	월평균 육아비용(C)	월평균 가구소득(C)	양육비부담률 (C/D)
0세	77,500	478,333	16.2				
1세	73,344	469,167	15.6	미취원아	70,000	446,667	15.7
2세	78,334	452,500	17.4				
3세	86,667	468,333	18.5				
4세	100,000	475,833	21.0	보육소 ·	101.007	400.000	00.5
5세	96,667	483,333	20.0	유치원아	101,667	493,333	20.5
6세	101,667	485,000	20.9				

정 책 동 향



[그림 3] 연령별·품목별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률

연령별 주요 품목의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의류·복식잡화비와 식비는 영아기 동 안 그 비용이 완만히 감소하다가 2~3세 이후부 터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보인다. 만0~1 세에 높았던 생활용품 비중은 영아기 동안 큰 감 소율을 보이다가 만3세 이후 크게 낮아져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 보육비는 영아기 동안 가장 가 파른 상승을 보이며 유아기에는 절대 비용과 상 대적 비율 면에서 양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였다. '보육비' 지출액은 보육소·유치원 등의 이용률이 절반가까이 되는 3세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이용률이 9할을 넘는 4~6세에서는 연간 29만엔 (한화 4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예·적금·보험비는 영아기 이후 소득대비 비율은 줄어드나, 취학전후 시기에 10%~15% 수준을 유지하는 항목이다.

한편, 학교외 활동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0~15세 자녀의 연령·학령에 따른 지출변동이 큰 비목에 해당한다. 영유아기의 경우, 첫 자녀 연령에 따른 학교외 활동 및 교육비의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이 커지는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의 경우 취학전 자녀는 학습위주의 학원교육비(학교외 교육비)보다는 취미위주의 특별활동비(학교외 활동비)의 지출이 3배 이상 많았다. 만5세의 경우 특별활동비

〈 표 5 〉학교외 활동 및 교육 월비용 추이

단위: 엔(명)

구분	전체	학교외 활동 (취미/교습 특별활동)	학교외 교육 (학원비, 사교육 등)	(宁)
0세	225	160	65	(528)
1세	462	399	63	(827)
2세	1,088	896	193	(781)
3세	1,748	1,330	418	(744)
4세	3,336	2,655	680	(762)
5세	4,679	3,800	879	(739)
6세	5,620	4,274	1,346	(433)

연 4만5천엔 사교육비 연 1만엔 만6세의 경우 이보다 조금 늘어나 특별활동비 연 5만1천엔, 사교육비 연 1만6천엔으로, 만5~6세가 되면 각각 연 5만6천엔(한화 월 약 64,000원), 연 6만7천엔(한화 월 약 78,000 원)을 보육시설 · 유치원 외 교육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취학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기타 교육비가 양육비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늘어나긴 하나 5~6세 월평균육아비용이 9만7천엔 10만 엔임을 감안하면 약 4천7백엔, 5천 6백엔의 비중은 높지 않다. 학교 외 활동비는 4세경부터 '학원 외 취미교습의 수업료 등' 지출이 많 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증가폭이 늘 어났다

다. 가구소득별 양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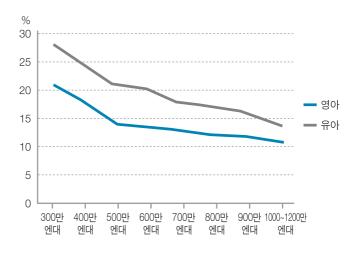
일본 가정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비용 총액이 많아졌으나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기 통틀어 월 소득 약 300만엔 미만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은 영아기 자녀의 경우 약 25%, 유아기 자녀의 경우 약 37%로 월 가구소득 대비 25%~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균 양육비용을 보

〈표 6〉연 가구소득별 영유아 월 양육비용

단위: 엔, %(명)

		영아		유아		
구분	양육비 ⁻	소득대비 비율	(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全)
전체	70,269	15.7	(2,231)	101,379	20.5	(2,583)
300만엔 미만	54,691	25.1	(221)	80,544	36.9	(222)
300만엔대	59,219	20.4	(416)	81,233	27.7	(354)
400만엔대	68,402	18.1	(477)	91,549	24.2	(484)
500만엔대	70,559	15.2	(444)	97,652	20.9	(486)
600만엔대	74,920	13.8	(273)	107,424	19.7	(319)
700만엔대	82,960	13.3	(166)	115,625	18.5	(289)
800~1000엔 미만	87,568	11.4	(157)	122,612	15.9	(266)
1000만엔 이상	105,674	11.2	(77)	142,077	15.0	(163)



[그림 4]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기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이는 연 가구소득 500~600만엔대 소득층의 양 육비 부담률은 영아기 약 15%, 유아기 약 20%로 월 가구소득 대비 20% 이하로 나타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비의 부담률 차이가 존재한다 (표6, 그림4 참조).

〈 표 7 〉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비 대비 항목별 비율

78	영아				유아			
구분	식비	생활 용품 비	보육비	예·적금·보험	식비	생활 용품 비	보육비	예·적금·보험
전체	19.7	17.7	7.4	23,6	18.5	7.6	31.2	15.4
300만엔미만	24.3	21.6	6,9	19.5	21.5	7.9	29.0	16.7
300만엔대	22.0	18.2	6.4	24.4	20.6	7.9	32.2	15.2
400 만엔대	20.4	17.1	8.1	24.1	19.6	7.3	33.0	14.9
500 만엔대	19.0	17.4	7.6	25.4	19.6	7.3	31.0	15.2
600만엔대	17.9	16.8	8.7	23.4	17.8	7.6	31.6	14.9
700만엔대	17.0	18.0	7.0	23.0	17.5	7.2	28.8	16.0
800~1000엔 미만	18.8	16.2	6.3	24.6	15.9	8,0	32.0	15.1
1000만엔 이상	17.1	18.6	7.7	19.0	15.0	8.2	29.9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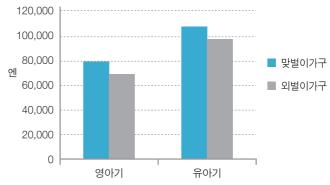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비' 는 가구소득이 낮을수 록 지출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연소득 300만엔 미만의 최저소득층의 식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저소득층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식비 와 생활용품비의 양육비 대비 비율은 가장 높았으 며. 예·적금·보험비의 비율은 다소 낮은 편에 속했다. 연소득 400만엔대 이상의 중신층 이상 영 아기 자녀 가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예 · 적금 · 보험비 비율이 양육비 지출 중에 가

장 컸다.

유아의 경우 보육비의 비중이 가 장 큰 가운데 가구소득에 따른 비 중에 큰 차이는 없었다. 유아기의 경우 자녀 예·적금·보험과 레 저 · 여행비 역시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식비 지출이 소득에 따 른 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 되며,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상 가 구의 품목별 지출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라. 맞벌이 · 외벌이 가구유형별 양육비용

일본의 경우, 미취학 아동 부모의 고용 형태는 첫째 자녀가 3~4세가 되면서 맞벌이 비율이 조 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중에 서도 양친 모두 정규직인 비율은 낮아지지만, 부



[그림 5] 맞벌이 · 외벌이 가구유형별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정규-모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높아져 10%를 넘 는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의 비 율이 다소 높아지나, 이는 주로 모의 비정규직 취 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연 평균 660만엔)이 외벌이가정의 소득(연 평균 590만엔)에 비해 높은 편이나 평균 소득수 준의 차이는 크지 않다.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비용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정 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 그 차이가 월평균 1만엔 (한화 약14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 외벌이 가구간 주요 품목별 지출비중에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으나,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생활용품비 지출이 다소 많고 식비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 · 유이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맞벌 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생활용품비, 보육 비. 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식비와 레저여행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유아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생활

용품비 의류 · 복식잡회비의 비율이 다소 높고 식비 비중이 낮았다 (표 8 참조).

맞벌이 · 외벌이 여부 보다 부모의 정규 · 비정 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양육비 지출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우선 부모 정규직기정과 부 정규 직-모 비정규직 가정에 비해 부모 비정규직, 부 정규직-모 무직 가정의 총 양육비 수준이 월 1만 엔 이상 낮았다. 맞벌이 가정내에서 부모모두 정 규직인 가정은 부모 모두 비정규직인 가정에 비 해 생활용품비와 예 · 적금 · 보험비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크고, 식비,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었다. 소득탄력성이 큰 식비의 경우 부모-비정 규직 맞벌이 가정이 22.9%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외벌이 19.4%, 모-비정규직 맞벌이 가정 19.0%, 부모-정규직 맞벌이 가정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 정규직-모 무직, 즉 모가 전 업주부인 외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비의 비중이 가장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예·적금·보험비와 레저 · 여행비. 학교외 교육비의 비중은 다소 높 았다(표 9 참조).

〈표 8 〉 영유아 맞벌이 · 외벌이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TE	전체	맞벌이가정	외벌이 가정	전체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의류 · 복식잡화비	8.2	8.6	8,0	5.5	5.8	4.9
식비	19.7	17.9	20.2	18.5	17.7	19.1
생활 용품 비	17.7	19.2	17.3	7.6	8.9	6.4
보육비	7.4	8.5	7.1	31,2	31.7	31.1
행사관계비	7.1	7.9	6.9	3.4	3.2	3.6
예저금.보험	23.6	23,7	23,6	15.4	15.3	15.2
레저여행비	11.5	9.9	12.0	11.2	11.2	11.3
(今)	(2,231)	(441)	(1,677)	(2,583)	(1,144)	(1,298)

동 정 책 향

〈 표 9 〉 맞벌이 · 외벌이 및 고용형태별 월양육비 지출

단위: 엔, %(명)

그님		외벌이 가정		
구분	부모 정규직	부정규직-모비정규직	부모비정규직	부 정규작-모 무직
양웩	104,500	93,700	84,000	81,000
항목별 비율				
의류 · 복식잡화비	6.9	5.3	6.3	6.3
식비	16,3	19.0	22.9	19.4
생활 용품 비	12.2	9.3	9.4	11.4
보육비	26.1	28.8	28.8	19.7
학교외교육비	3.8	5.3	4.9	5.4
예저금.보험	17.9	16.7	12.9	19.3
레저여행비	10.4	10.9	9.5	11.7
기타	6.1	4.3	5.1	6.5
계(수)	100.0(804)	100,0(468)	100.0(81)	100.0(2,634)

3. 결과 및 제언

미국이 가계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양육비를 산 출한다면, 일본 내각부 조사는 주거비나 광열비 등 주요 가계지출의 공통항목을 제외하고 자녀 고유지출 항목 위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일본 미 취학아동 1인당 한화 평균 120만원의 양육비용 (영아-약97만원 유아-약140만원) 이 추계되었 다. 추정방법과 조시항목, 가계소득수준 등의 차 이로 한국과 일본의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서문희 외 (2010)의 도시 중산층 가계의 자녀 고유지출만을 고려한 추계(자녀 1인 가정 양육비 58만원 2인 가정 76만원)와 비교할 때 일본의 총양육비가 더 많으나, 조시된 일본의 월가구소득수준이 한국의 약2배임을 고려하면 가구소득대비 영유아 자녀양 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해보인다. 「2009 내

각부조사」에 의한 일본 양육비 지출의 특징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소비지출인 예·적금·보험료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여 양육비용을 조시하였으며, 결 과적으로 영아기 20%이상, 유아기 15%이상으로 일본의 경우 미래대비 자산형성이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을 보였다.

둘째. 유아기 자녀의 경우 보육비가 총 양육비 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중있는 항목이 었으며, 만3세이후 보육비의 증가가 총 양육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가정에서 보육비의 지출이 가장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항목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출하여 소득탄 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의 지출 이 늘어나고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 또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

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총액은 많아졌으나 가구소득대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소득수준 및 부모 취업특성에 따라 양육비 지출품목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 품목별 소득탄력성이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식비는 가 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출비중이 컸으며, 저소득층 의 경우 식비와 기본 생활용품비의 비율이 가장 높고 예·적금·보험비의 비율은 낮았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예·적금·보험료와 레저 · 여행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중신층 이상의 가구에서 품목별 양육 비 지출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섯째,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평 균 총양육비의 지출이 더 많은 가운데, 맞벌이 · 외벌이 여부보다는 부모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 에 의한 총양육비와 항목별 지출양상의 차이가 더 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는데, 가구소 득 대비 양육비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소 득대비 비중의 감소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큼을 알 수 있다(서문희 · 최윤경 · 신윤정 · 이 세원 2010). 유아기 이후 계층과 상관없이 보육 비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 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예·적금·보험비와 레저 · 여행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부모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에 의한 총양육비와 항목별 지출양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육아 비용구조를 고려할 때, 일본의 현행 양육지원정 책이 보육서비스 등의 현물지원과 아동수당과 같 은 현금지원으로 조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해보인 다. 그러나 그 조합의 구성과 보육 외 현물서비스 이용권 지급 등의 측면에서 양육지원이 보다 구 체회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히 저출산 타개를 위한 양육지원이 모의 취업여부만이 아니라 부 · 모의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 등 고용특성과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한 설계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 로,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양육 비용 지출 조사를 통해 육이비용 지출 구조를 파 악하여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양육지원 체계를 수립해 갈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차이와 무관한 보편적 양육지원체계 와 소득수준 및 부모의 고용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선별적 차등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